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10 pp. 718-723, 2023

https://doi.org/10.5762/KAIS.2023.24.10.718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실용음악과 교육과정과 취업 연계성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

조태선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Reflections on the correlation between practical musicology curriculum and employment linkage

Tae-seon Cho
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한국의 대중음악, 즉 K-POP은 전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음악 분야가 되었다. 정부의 도움 없이 이런한 발전을 이룬 것은 기획사들의 역할이 컸지만, 교육을 비롯한 대중음악 관련 시스템의 발전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K-POP의 산업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음에도 관련 학문 분야인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취업은 2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학원강사, 개인레슨에 머물러 있다. 본 논문은 교육과정을 취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스포츠 분야인 사회체육, 생활체육 등의 사례를 통해 자격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기해 본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자격증을 실용음악과의 교육과정과 연계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대중문화의 산업 규모가 커진 만큼 다양한 직업군이 창출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곳에 종사할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 현장의 흐름을 수시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야흐로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음악 분야도 인공지능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급변하는 세상에 적극 대응 하지 못하면 그 분야는 퇴보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Abstract Korean pop music (K-pop)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music fields in the world. Promoters played a big role in achieving such a leap forward without government help, but the development of popular music-related systems, including education, also played a big role. Even though the scale of the K-pop industry has grown by leaps and bounds, the employment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Practical Music (a related academic field) remains the same as it was 20 years ago for cram-school instructors and private less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a way to link the curriculum to employment. Examples of social and physical education and daily physical education in the field of sports are examined for the ways certificates are used, and to propose alternatives. Also looked at is whether it is possible to link currently established certification with the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of Practical Music. As pop culture has grown, a variety of professions have been created, and as a result, there is a need for a lot of talent to work in it, and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flow of the field from time to time, actively respond to it, and make efforts to operate the curriculum organically. Becoming a world domin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 music sector will not be able to escape the impact of AI. We must keep in mind that if we do not actively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world, the field will inevitably regress.

Keywords : K-pop, Music, Certificates, Curriculum, Education

*Corresponding Author : Tae-seon Cho(Choongwoon Univ.)
email: 22019686@daum.net
Received September 18, 2023 Revised October 4, 2023
Accepted October 6, 2023 Published October 31, 2023

1. 서론

1.1 개요

바야흐로 한국의 대중음악, 즉 K-POP은 전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음악 분야가 되었다. 2000년대 초 몇몇 아이돌 그룹으로 비롯해 시작된 이 현상은 음악적인 한계성과 표현의 제한,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여러 번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이젠 POP음악의 한 분야로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초창기 회사들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성장하였다. 2000년대 초반 3~4개의 기획사에서 제작을 주도한 아이돌 그룹을 이젠 많은 기획사가 나서고 있고, 중소기업 형태의 작은 기획사에서도 세계적인 스타를 만들어내는 등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중소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로써 대한민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보편화된 글로벌 사업 분야로 정착되었다[1].

K-POP이 번성할 무렵 가장 지적받았던 부분은 음악적인 한계성이었다. 남자 아이돌, 댄스음악, 칼 군무, 후크송스타일의 곡... 당시 모든 아이돌 그룹들은 예외 없이 거의 같은 형식으로 곡을 발표하였다. 그로 인해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고군분투하였다. 단명할 것이라는 예상부터 연습생을 거쳐야 하는 강압적인 기획사 시스템에 대한 비난, 음악 인재 부족 등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 그러나 싸이, BTS, 블랙핑크에 이르기까지 현재는 K-POP의 위상이나 음악적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이돌, 걸그룹은 물론 성인가요의 전유물인 트로트까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분야가 되어 K-드라마, K-뮤비, K-아트 등 유사 이래 한국 문화 최전성기를 맞고 있다[2].

국가 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 이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은 기획사들의 역할이 컸지만, 그 이면에는 교육을 비롯한 우리 대중음악 관련 시스템의 발전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배경

대학에 실용음악과가 본격적으로 개설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후반부터이다. 80년대 후반 서울 예대 국악학과 내에 실용음악 전공이 개설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90년대 후반 청운대학교, 한서대학교 등 4년제 대학에 개설되면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당시 K-POP의 약진과 인재 발굴을 위해 방송사에서 진행했던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저급함으로 인식되었던 대중음악이 글로벌스타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이를 대하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래 비젼이 있는 분야로 인식되며 조기교육을 시키려는 수요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대중음악 분야도 교육 제도의 틀에 실용음악이란 이름으로 정착하기 시작했다[3].

실용음악은 나날이 주목을 받았으며 지원자 역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후 실용음악과는 모든 대학 개설 1순위 학과로 부상했으며, 일부 대학의 경우 수 십대 일에서 수 백대 일을 넘나드는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그에 따라 대학은 물론 학원, 아카데미, 콘서바토리 등의 많은 사교육 기관들도 등장했고, 그곳을 통해 수많은 인재가 배출되고 있다. 현재는 음악의 범의를 넘어 K-POP학과, 실용댄스 전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실용음악은 한국 대중음악의 저변확대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뛰어난 뮤지션을 배출했다.

대학에 학과가 생긴 지 20여 년이 훨씬 넘었으며, 100여 개가 훨씬 넘는 대학에서 학과를 운영 중이며, 현재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이젠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 고등학교도 생겨나고 있으며 몇 년 전에는 국내 최초로 한국K-POP고등학교가 충남 광천에 개교하여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1.3 문제점 제시

그동안 K-POP과 더불어 실용음악 분야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K-POP이라 불리는 한국의 대중음악 분야는 20여 년 전보다 시장 규모가 수백 배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다. 경제적인 파급력으로 인해 한국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여러 지원정책을 발표, 육성하고 있다. 그로 인해 관련된 새로운 음악 산업들이 파생적으로 생겨나면서 신규 일자리도 계속 창출되고 있다. 대학의 실용음악과 역시 개설된 학과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고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언급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과연 그동안 배출한 많은 졸업생이 한국 대중음악 시장 즉, K-POP분야에 취업해 종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20여 년 전 실용음악과 학생들 대부분의 취업 희망 분야는 연주인, 가수, 학원강사, 개인레슨, 보컬트레이너 등이었다. 모두 현장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만 연주 활동만으론 수익과 연결될 수 없기에 강사, 레슨 등의 교육활동을 병행하기를 희망했다. 당시로서는 대중음

악 시장 규모도 작고, 범위도 협소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었다.

2023년 현재 학생들의 취업 희망 분야는 학원강사, 개인레슨, 보컬트레이너이며 애초에 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연주인이나 가수를 꿈꾸는 학생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동안 시장 규모가 수백 배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고, 사회적인 저변확대와 국가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의 취업은 20여 년 전과 똑같은 학원강사가 대부분이다[4].

K-POP과 대학의 실용음악은 함께 성장해 왔음이 분명한데 학생들의 취업 분야는 과거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젠 전문 뮤지션을 희망하는 학생조차 거의 없으니 오히려 줄어들었다. 본 연구는 그 이유를 찾고자 한다. 현실에 즉시 사용 가능한 실용주의를 기치로 학과 이름에도 실용 이란 용어를 붙였음에도 정작 학생들의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일일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 운영 효율성 등에 대에 대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2. 본론

2.1 취업분야

대중음악산업 분야는 매우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 그중 음악전문가 영역으로 한정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음반 제작, 기획, 편곡, 연주, 밴드, 가수, 작사, 작곡가, 싱어송라이터, 음향 편집, 음악 유튜버, 프로듀서, 음향 엔지니어 등이 있다. 이 분야는 일반적인 전문직업군으로 거의 모든 학교 등에서 취업 가능 분야로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기획사에서 가수를 선발하고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A&R이 학생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학생 대부분은 학원강사, 개인레슨, 보컬트레이너 등 교육 분야 취업을 가장 선호한다[5].

수 년 전부터 지역문화센터가 활성화되면서 방과후 학교, 지역 문화센터, 사설 아카데미, 콘서바토리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어 해당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개설된 과목들은 다음과 같다.

통기타, 드럼, 피아노, 노래, 타악퍼포먼스, 아카펠라, 밴드합주, 섹소폰, 우쿠렐레, 오카리나, 음악 만들기(미디) 등이다. 위 과목들은 현 실용음악과에 개설된 교육과정과도 연계성이 많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9].

대부분의 실용음악과 들의 교육목표는 음악전문가 육성이다. 음악 전문인이라면 일단 음반, 제작, 기획, 연주, 편곡, 밴드, 가수, 싱어송라이터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 분야를 2년에서 4년 동안의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해 취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실제로 취업이 가능한 부분을 선별해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2.2 교육과정 분석

다음은 실용음악과 4년제 대학 교육과정으로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교과목은 Table 1을 기준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를 예시로 취업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용음악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음악 경력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 사설 학원 등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면서 시작하게 된다. 그 기간은 대략 1~3년 정도로 학교 일과를 마친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입시와 관련된 수업을 받는다. 본인의 전공과 이론, 악기 등 서 너 개의 과목을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이며 보통 전공 한 과목 또는 전공, 부전공 악기 두 과목을 배우게 된다. 어차피 입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본인의 전공 능력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그 부분에 집중해서 연습한다. 따라서 위의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목들은 대학에 입학한 후 수업을 통해 지식을 얻게 된다.

아래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두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목이 매 학년마다 바뀌게 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공실기 과목만 전 학년에 걸쳐 수업이 이루어지며 대게의 교과목은 1년 혹은 2년 단위로 바뀐다. 이는 교과목의 중요성에 따라 편성되는데 이를 통해 전공실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Table 1. Curriculum

Year	Semester	Course Name
1	1	Speciality Ⅰ, Practical Harmony Performance Ⅰ, Ex-Speciality(Vocal, Piano, Guiter) Ⅰ,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Ⅰ, Vocalization Ⅰ, Computer Music Introduction Ⅰ
	2	SpecialityⅡ, Practical Harmony Performance Ⅱ, Ex-Speciality(Vocal, Piano, Guiter)Ⅱ,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Ⅱ, Vocalization Ⅱ, Computer Music Introduction Ⅱ

2	1	Speciality Ⅲ, Performance Ⅰ, Ex-Speciality(Vocal, Piano, Guiter)Ⅲ, Digital Audio Workstation Technic Ⅰ, Ensemble Ⅰ, Chorus Ⅰ, Improvisation & Vocalscat Ⅰ, Jazz Harmony Ⅰ, Practical Music History Ⅰ,
	2	Speciality Ⅳ, Performance Ⅱ, Ex-Speciality(Vocal, Piano, Guiter)Ⅳ, Digital Audio Workstation Technic Ⅱ, Ensemble Ⅱ, Chorus Ⅱ, Improvisation & Vocalscat Ⅱ, Jazz Harmony Ⅱ, Practical Music History Ⅱ
3	1	Speciality Ⅴ, Performance Ⅲ, Improvisation & Vocalscat Ⅲ, Jazz Arrange Ⅰ, Vocal Ensemble Ⅰ, Peformance master Ⅰ, Musical and Acting Practice Ⅰ, New Media Music Analysis Ⅰ, Digital Recording Ⅰ, Song Writing Ⅰ,
	2	Speciality Ⅵ, Performance Ⅳ, Improvisation & Vocalscat Ⅳ, Jazz Arrange Ⅱ, Vocal Ensemble Ⅱ, Peformance master Ⅱ, Musical and Acting Practice Ⅱ, New Media Music Analysis Ⅱ, Digital Recording Ⅱ, Song Writing Ⅱ
4	1	Speciality Ⅶ, Portfolio Production Ⅰ, Percussion and Rhythm Ⅰ, Music Promotion Technic Ⅰ, Electronic Sound Performing Ⅰ, Recording Session Ⅰ, Modal composition Ⅰ, Practical Music Arrange Ⅰ
	2	Speciality Ⅷ, Portfolio Production Ⅱ, Percussion and Rhythm Ⅱ, Music Promotion Technic Ⅱ, Electronic Sound Performing Ⅱ, Capstone Design Performance

위 대학은 컴퓨터 음악 수업이 전 학년에 걸쳐 다른 이름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본인의 음악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미디 역량에 교육의 목표가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타의 학교들의 경우 목표가 재즈 앙상블 등의 연주 능력에 집중하는 예도 있다.

모든 학교는 정해진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변수가 있다. 전공과목 중 학점 받기가 어려운 과목 기피, 맘에 들지 않는 교수님 과목 미 수강, 전공 대신 교양과목 수강 등등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교육부 정책으로 졸업학점이 줄어들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보장으로 교양 학점의 비중이 높아지고, 전공필수 과목 축소, 학년별 교차 수강 가능 등 수많은 변수로 인해 목표 달성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다[6].

고등학교 정규 교육이 아닌 학원 등의 사교육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전공필수로 구분되어있는 전공 실기 과목을 제외하고는 그저 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수업 목적 외에 그 이상도 바랄 수 없다. 예를 들어 미디 관련 수업을 3년 동안 수강해도 편곡작업을 원활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근래 들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이 고객이 되는 상황에선 더더욱 교육 성취에 매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결국 학생들의 취업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생 자신도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미흡함을 알기 때문에 그나마 학업 기간 내내 받았던 전공실기 수업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과 2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학원강사, 레슨 등의 교습 활동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7].

2.3 사례비교

스포츠 분야의 경우 체육대학 설립 초기에는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후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등을 거치며 국민건강 증진에 관심을 끌게 되었고 사회체육 분야가 활성화되었다. 삶의 수준이 나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일반인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회체육학과가 그에 해당한다. 이후, 스포츠지도학과, 청소년스포츠지도학과, 생활체육학과 등 여러 형태로 개설되었다.

이런 학과들은 관련 자격증 취득을 기본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체육 분야 자격증 종류는 다음과 같다[8].

1) 생활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사설 체육시설, 직장,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등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유지 여가선용 등 생활체육 참여자의 목적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수집 및 지도하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원장이 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음 종목에 해당한다.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핸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등)

2) 전문스포츠지도사

급수에 따른 응시 자격을 갖춘 자가 국민체육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건강운동관리사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 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 방법을 지도 · 관리한다.

4)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장애 유형에 따른 운동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한다.

5)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함)의 행동양식, 신체 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 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 · 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8].

위의 자격 과정은 국민체육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은 교육과정을 통해 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종목별로 별도의 자격증 과정도 있는데, 일반 체육대학 내에 태권도 학과의 경우 단증을 비롯해 태권도사범지도자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전문체육인 육성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지도자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스포츠와 관련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체육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건강한 국민 체육활동에서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3. 논의 및 대안제시

실용음악과가 대학에 개설되기 시작한 지도 20여 년이 지났다. 배출된 졸업생 인원만 하더라도 어림잡아 만여 명에 달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실용음악과는 전문인 양성에만 집중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 문제는 등한시하였다. 그사이 민간 부분에선 음악 관련 자격증 과정이 여러 협회를 통해 생겨나기 시작했고 10여 년 전부터는 그러한 자격증들이 현장에서 활용되었다. 그로 인해 실용음악과에서 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이 자격증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취업을 개인레슨이나 실용음악학원 강사로만 한정하다 보니 방과후 학교, 문화센터, 아카데미, 동호회 등 훨씬 더 많은 취업 분야를 놓치고 있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POP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우리 대중음악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마케팅 분야가 되었다. 이는 많은 일자리와 다양한 사업 분야가 존재한다는 뜻일 것이다.

현재 모 협의회에서 직업능력 연구원과 문화체육부의 심의를 통해 실용음악 관련 자격 과정을 만들고 있다. 2-3년 전부터 일부 대학과의 MUO를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협의회에선 방과후 학교, 문화센터 등에 개설된 여러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과정과 연계 가능한 다양한 자격증을 만들어 놓았다. 개설된 자격과정은 다음과 같다[4].

보컬트레이너 1, 2 급
실용음악기악강사 1,2급
(기타, 피아노, 드럼, 베이스, 섹소폰, 트럼펫 등)
밴드앙상블지도사,
미디프로그래머,
AI피아노마스터 이며, 향후 타악퍼포먼스지도사, 아카펠라지도사, 스마트음악지도사 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Table 2. Linking courses and certifications

Course	Certification
Major Practical Skills	-Vocal Trainer -Practical Music Instrumental Instructor
Ensemble	-Band Ensemble Instructor
MIDI	-Midi Programmer
Rhythm	-Percussion Performance Instructor
Vocal Ensemble	-Acappella instructor

Table 2는 교과목과 자격증의 연계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교육과정에 지도 및 교수법을 추가하거나 일부 교과목의 명칭 변경, 평가 방법 보완 등을 통해 실용음악과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4. 결론

K-POP과 실용음악과는 같은 대중음악적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대하는 인식들이 있다. K-POP 관계자는 물론, 학생, 대학 교수들도 서로를 별개의 분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댄스 위주의 K-POP과 음악교육을 목표로 하는 실용음악을 단편적으로 보아 발생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편협한 사고일 것이다. 대중문화, 그중에서도 대중음악에 바탕으로 K-POP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K-POP의 비약적인 발전과 아울러 실용음악과의 등장으로 한국의 음악적 역량이 매우 높아졌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학의 교육시스템은 인재 개발은 물론 그 인재를 가르치고 키우는 지도자 양성, 그와 아울러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확립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 그에 따라 사회적인 저변확대에 이바지해 대중음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의 산업 규모가 커진 만큼 다양한 직업군이 창출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곳에 종사할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

실용음악은 음악적 정통성 추구보다는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활용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장의 흐름을 수시로 파악해야 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 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실용음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을 가르쳐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대학 학문의 숙명이다. 이젠 바야흐로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음악 분야도 인공지능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그 분야는 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eferences

[1] B.G. Park, T.S. Cho A Study on Jamaican music Used in Moombat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6, pp. 273-280, 2021
DOI: http://dx.doi.org/10.14400/JDC.2021.19.6.273

[2] C. H. Ham & T. S. Cho, A study on the 1970's korea Psychedelic Rock (focusing on Shin, Joong hyu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peration Society,* 19(9), 694-699,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9.694

[3] S. H. Cho,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8, n2, p383 - 389,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2.383

[4] Korea Council of Popular Music Education
http://edu-kpop.com/main/index.html

[5] H .C. Kim, T. S. Cho,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2, n1, p379 - 384,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1.379

[6] H,.S,.Han, T.S. Cho Analysis of the use of tuplet by drummer Anika Nill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7, pp. 245-251, 2021
DOI: http://dx.doi.org/10.14400/JDC.2021.19.7.245

[7] K,I. Choi, J.I. Lee, Y.A. Yoon, The effect of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welfare project on the school adaptation and mediative effect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8, pp..485-492, 2020.
DOI: http://dx.doi.org/10.14400/JDC.2020.18.8.485

[8] Korea Sports Promotiom Fiundation
https://www.kspo.or.kr/kspo/main/contents.do?menuNo=200390

[9] KRIVT Private Qualifications Information
https://www.krivet.re.kr/ku/index.jsp
https://www.pqi.or.kr/indexMain.do

조 태 선(Tae-Seon, Cho) [종신회원]

- 2010년 2월 : 실용음악학회회장
- 2016년 6월 : 대한가수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 2019년 8월 ~ 현재 : 한국실용음악교육협의회 회장
- 2019년 8월 ~ 현재 : 한국대중예술융합협회 회장
- 2001월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보컬,, K-POP